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	배포일자 2021년 11월 22일(월) 총 2매				
담당부서	육아지원과	담당자	• 육아정책팀장 김명숙 ☎440-2951 • 담당자 박은심 ☎440-2954			
사진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참고자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			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시,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‘앞장’

- 내년부터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‘활동장려수당 3만원’ 지원 -
 - 시, 앞으로도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위해 적극 노력할 것 -

인천시가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에 팔을 걷어 붙였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2022년부터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활동장려수당 3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

10월 현재 인천시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1,257명으로 연간 37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특히,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및 학교 등의 휴원·휴교로 시설 돌봄의 공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.

하지만 아이돌보미의 기본 급여는 2021년 기준 시급 8,730원으로 최

저 수준이다. 인천시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시비 345백만 원을 편성해 2022년부터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활동장려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.

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“아이돌보미는 인천의 미래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, 앞으로도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” 고 말했다.

한편,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.

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 단위 돌봄과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운영하고 있으며, 정부지원 대상*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.

*정부지원 대상 : ①취업·한부모·맞벌이 가정 ②부 또는 모, 혹은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가정 ③다자녀 가정(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 제외) ④기타 양육 부담 가정